

격 려 사

우리 민족의 국토와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문화와 민족정기까지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오랜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불교계 역시 사찰령에 의한 자주권 상실과 전통 불교의 왜색화에 의한 수행 전통의 파괴에 맞서 만공, 용성 큰스님을 위시한 수행자 스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청정한 전통과 정통성을 유지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은 우리 불교계에는 다방면에 식민지 불교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색불교와 자주성 상실이라는 식민지 잔재를 제거하여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해방공간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움직임은 1954년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바로 1954년부터 1962년까지 8년간 진행된 불교정화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화운동의 과정에서 효봉, 동산, 금오, 청담, 자운, 경산 큰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교를 새롭게 하고 종단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결과 오늘날 조계종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1954년 8월 25일 선학원에서 개최된 전국비구승대표자대회는 정화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었으며, 8년간의 정화운동 과정에서 1960년 11월 19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개최된 제2회 전국승려대회는 정화운동의 성사와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운집한 1천여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에 대처승 없다'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는가 하면, 순교단을 조직하고, 단식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1월 24일의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자 스님과 신도들은 대법원을 찾아가 불교정화를 향한 전 종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분의 스님들이 순교의 자세로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였고, 360여명이 스님과 신도들이 연행되어 10여 일간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는가 하면, 24분의 스님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3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같은 순교적 자세,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1962년 4월 통합종단이라는 이름으로 조계종단은 재정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대 불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960년 11월 전국승려대회 5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정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의지를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 종도의 정화의지를 내외에 알린 대법원 판결 60년을 맞는 오늘 <불교, 정화운동을 다시 본다>라는 주제 하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주최하신 불교정화운동 기념사업회 발기인 여러분과 보조사상연구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운동은 해방 후 우리 불교계가 해결해야 했던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운동은 오늘의 청정 수행종단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계종 정체성의 뿌리인 불교정화운동 정신의 구현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50년 전의 정화운동이 오늘에 주는 과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가 미래의 종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모색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하는 지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정화운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의 조계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그려보기 위한 모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도 불교정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조계종의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행사를 주관하신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조명하여 미래를 열기 위한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종단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종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과제를 일깨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